

지역 매 아리

# “보리 전량 매입 대책 마련”

김제시보건소

구강 보건주간기자재 전시 인기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제74회 구강보건주간(6.3 ~ 6.14)을 맞아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강위생용품, 구강관련 교육용품 및 리플릿 등 보건소 1층에 전시 구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관을 운영했다.

특히 첫 영구치가 나오는 6세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 검학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홍보, 폭넓은 예방 활동을 실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보건소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구강 보건 상담 및 점심 식사 직후 바른양치 잇솔질 실습, 불소바니쉬 도포제형 등 어렸을 때부터 치아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평생 구강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가 관리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 미취학 어린이 및 학생들의 치아관리에 최선을 다할것 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구면 행복노래교실

찾아가는 재능기부 활동 진행

학습을 통해 갖고 싶은 재능과 소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보람을 찾기 위한 금구면주민자치회 행복노래교실(회장 이명모) 재능기부활동이 지난 15일 신세계병원에서 성황리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제시 금구면 주민자치위원회 행복노래교실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노래교실 회원 30명과 환우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하얗게 세리내린 백발에도 오카리나를 자신있게 연주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목로주점과 모란동백, 당신뿐이야, 뿐이고 등의 곡을 멋진 울림과 함께 선사하였다. 환우들은 큰 박수와 몸짓으로 환영하였고 때로는 따라 부르기도 하며 음율과 함께 하나되는 멋진 시간을 갖었다.

또한 공연을 마친 후에는 금구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환우들과 같이 나누었으며 병원측에는 약간의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명모 회장은 “모두가 반겨주고 좋아해주어 보람감 이상의 감격스런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욱 수준높은 음악을 정성껏 준비하여 마음까지도 깨끗이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재영 금구면장은 “노움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보람찬 일에 나서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 농식품부 방문 맥류 과일 생산 따른 처리 건의

박준배 김제시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맥류 과일생산 여파로 큰 폭의 가격하락이 현실화돼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수요 초과 물량에 대한 처리를 건의하였다.

특히 이번 이개호 장관 면담을 통해 보리의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중앙회 등이 합심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대책과 협조를 부탁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김제시 올해 보리는 재배면적 3310ha에 생산량(예상)은 2만400톤으로 전년대비 43%늘어 과일 생산에 이로 인한 가격폭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정용으로 매입하는 물량 6167톤과 지역농협의 추가 매입량 5534톤을 제외한 8699톤은 과일 생산

으로 인한 수요 초과 물량으로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

생산은 늘었지만 겉보리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10 ~ 2018년까지 1.3kg으로 제자리이고 값싼 수입보리를 주정용으로 사용하는 등 다중고에 직면해 있다.

보리 계약재배의 경우 쌀보리 3만 7000원, 겉보리 3만3000원(40kg 기준)에 수매되고 있지만 비계약재배는 쌀보리 2만7000원, 겉보리 2만3000원(40kg 기준)에 수매돼 1만원의 격차를 보여 맥류 재배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초과물량 8,699톤에 대해 4699톤은 농가 자체 처리하고 2000톤은 김제시가 나머지 2000톤은 중앙정부가 수매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보리 전량 매입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보리 생산량이 적정 수요를 넘어 가격 하락 및 농가 소득 감소 등 대안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수요초과 물량의 전량 매입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에 감사한다”면서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꺾고 있어 시장격리, 산지폐기와 함께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소비자 가격 안정 대책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KTX 김제역 정차’ 캠페인 앞장

김제제일사회복지관, 김제시장 등 100여명 참석... 범시민 홍보 전개

김제제일사회복지관은 지난 14일 김제전통시장에서 KTX 김제역 정차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날 김제제일사회복지관 직원과 노인일자리사업단 전통시장지킴이, 우리동네지킴이 사업단 100여명의 회원들은 “전북서부지역 50만명의 KTX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KTX 김제

역 정차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결의를 외치고 김제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를 강력히 요구하는 범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KTX 김제역 정차 릴레이는 지난 5월 김제시니어클럽에서 시발점으로 김제제일사회복지관, 김제시니어클럽에서는 캠페인으로, 김제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 성안노인복지센터는 결의대회를 다지는 릴

레이로 이어질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어르신들이 KTX를 이용하려면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차를 이용해야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경제성이나 효율성보다 철도의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여 김제역 KTX 정차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캠페인에 앞장서게 되어 김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립 삼례도서관 ‘키즈 튠튼 요가’ 만족도 높아

완주군립 삼례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키즈 튠튼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지난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삼례도서관은 도서관 사서의 독서지도에 따라 요가와 관련된 서적 <어린이 요가놀이>(수전베르테 지음)를 읽고, 요가전문강사가 기본자세를 한 명씩 코칭해주는 형식으로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서를 기반으로 도서관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다.

임예인 어린이는 “눈을 감으니 새 소리가 들려요. 눈을 뜨니까 파란 하늘이 보이구요. 나무들 옆에서 요가를

하니 몸도 시원하고 재미있었어요”라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완주군립 삼례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키즈 튠튼 요가’가 진행중이다.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는 키즈 튠튼 요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립 삼례도서관(063 290-2643)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부티홍씨 효부상 수상

제11회 대한민국 손순자 효부상 섬김상 선정

완주군 화산면에 거주하는 부티홍(한국이름 이운정 41·여)씨가 ‘제11회 대한민국 손순자 효부상’의 섬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손순자 효부상은 지난 2009년부터 노부모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며느리를 발굴해 대상, 섬김상, 화목상 등 3개 부문으로 시상하고 있다.

2003년 한국으로 시집은 부티홍씨는 2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11년 동안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다.

특히, 2010년부터 몸이 편찮았던 시아버지(83세)를 2011년 돌아가지기 직전까지 만사의 몸으로 간병했으며, 같은 해 시어머니까지 중풍과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중풍치매까지 앓게 되자 병원비 마련을 위해 낮에는 육묘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 후에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며 지극성으로 시부모님을 모셨다.

이웃 주민들은 “멀리 타국에서 시집과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데 안쓰러워 위로의 말을 건네면 언제나 씩씩하게 관찮다고 말하는 부티홍씨가 대단하다고 느껴졌다”며 “따뜻한 마음에 매번 감동하고, 이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손순자 효부상은 이번



수상자를 선정하면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국 대상 공모와 전문가 심사 및 현지 실사를 하는 등 꼼꼼한 심사과정을 거쳤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낯선 한국에서 한국 며느리도 하기 힘든 시부모님에 대한 효와 섬김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었던 부티홍씨가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돼 무척 기쁘다”며 “그동안 고생했던 부티홍씨에게 작은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늘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복지사각지대 제로’ 민관협력 워크숍

완주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완주군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2박3일간 제주도에서 ‘복지사각지대 제로 완주만들기’를 주제로 맞춤형 복지 민관협력 워크숍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맞춤형복지 공무원 등 32명이 참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소통협력과 완주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완주형 복지시스

템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2018년 지역복지 평가 우수기관인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완주군에 적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 기회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력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상호이해와 관계형성을 통한 결속력 강화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복지 발전에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임실인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인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인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인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